

역사와교육학회 제13회 월례발표회

장소 : 동국대학교 정보문화관 P401 강의실

일시 : 2019년 4월 20일 오후 2시~6시

발표자 : 김선숙(사단법인 국학연구소)

<일본 중등 역사교과서의 개략>

◆ 교과서명 : 『新編 新しい社會 歴史』(東京書籍, 2017)

제2장. 고대까지의 일본

제2절. 일본열도의 탄생과 대륙과의 교류

1. 일본열도의 탄생과 죠평문화

▶ 일본열도의 탄생 : 빙하시대에는 여러번 해면이 지금보다 100미터 이상 낮아졌고 현재의 일본열도는 대륙과 연결이 되어 맘모스·나우만코끼리·큰뿔사슴·야생소 등이 존재하였다. 이들 동물을 쫓아 이주하여 살던 사람들은 식물을 채집하고 타제석기가 부착된 도구를 사용하여 동물을 사로잡아 식량으로 삼기도 하였다. 또한 사람들은 10인 전후의 집단을 만들어 간단히 풀을 엮어 작은 집이나 바위 그늘에 거주하면서 사냥감을 찾아 이동하고 불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무렵 이미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물물교환에 적합한 조직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쯤 최후의 빙하가 끝나고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했으며, 대륙의 일부였던 곳이 섬이 되어 현재의 일본열도가 거의 완성되었다.

▶ 죠평(繩文)문화 : 1만 2천 년 전부터 일본열도 사람들은 나무 열매를 찌서 먹기 위해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흑갈색 바탕에 새끼줄 무늬의 매듭이 그려진 것으로 **죠평토기**라 부르며 그 문화를 **죠평문화**, 그 시대를 **죠평시대**라 한다. 죠평시대에는 식물의 재배가 시작되었지만, 해면이 상승하고 해안에 많은 후미가 생겼기 때문에 물고기나 조개류가 풍부해지고 밤, 도토리 등의 나무 열매나 새, 사슴, 멧돼지 등의 동물도 많아졌는데 농경이나 목축은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다. 해안이나 물가에는 버려진 음식물 찌꺼기가 쌓여 **貝塚**이 생겼다. 이 시대 사람들은 식량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에 **수혈주거지**를 만들어 살았다. 大人이 된 사실을 나타내는 의식으로써 **拔齒**를 행하고 죽은 자의 영혼의 불을 막기 위한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屈葬**이 이루어졌고 **土偶**도 만들었다. 이 같은 죠평인들과 그 후 대륙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혼합되어 오랜 세월 동안 공통의 언어와 문화를 갖으며 일본열도에 널리 퍼져 나갔다.

2. 야요이(彌生)문화와 야마대국

▶ 야요이문화의 성립 : 기원전 4세기 무렵 대륙(주로 한반도)으로부터 이주해온 사람들에게 의해 벼농사가 **큐슈 북부에 전해지고 결국 동일본에까지 널리 퍼졌다**. 사람들은 논과 가까운 곳에 집을 짓고 살며 쥐나 습기를 막기 위해 **高上倉庫**를 만들어 쌀을 저장하였다. 금속기인 **銅劍, 銅矛, 銅鏡, 銅鐸** 등은 주로 제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철기는 무기 외에 목제의 농구나 배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적갈색을 띤 **야요이토기**도 다수 만들어 사용하

여 이 시기를 **야요이시대**, 그 문화를 **야요이문화**라 부른다.

▶ 국가의 탄생 : 벼농사가 성행하게 되면 사회조직도 급속히 변화하여 작은 나라들이 생기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유력자나 왕이 출현하게 된다. 중국의 역사서인 『漢書』에는 기원전 1세기 무렵 왜에 100여 개의 나라가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낙랑군을 통해 漢에 사신을 보낸 나라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後漢書』에는 기원후 1세기 중반에 현재의 후쿠오카 평야에 있었던 왜의 奴國王이 후한에 사신을 보내자 황제가 金印을 하사했던 것으로 쓰여 있는데, 에도시대에 후쿠오카현에서 발견된 ‘漢委奴國王’이라 새겨진 금인이 발견된 바 있다.

▶ 야마대국의 여왕 : 3세기가 되면 중국에서는 후한이 멸망하고 위·촉·오의 삼국으로 나뉘어 소위 삼국시대에 접어든다. 그 무렵 왜에는 **야마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서 魏에 조공하였다. 『三國志』 魏志倭人傳에는 왜인에 대해 야마대국의 여왕 **卑彌呼**가 왜의 30여 개의 작은 나라들을 따르게 했다는 것, 그 나라들에는 이미 신분의 차이도 발생하고 있었던 사실, 히미코가 사신을 魏郡에 보내 황제로부터 ‘親魏倭王’이라고 하는 칭호와 금인을 받고 銅鏡 100매 등의 선물을 받았던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야마대국이 있었던 장소에 대해서는 近畿(야마토 나라현)와 큐슈 등 두 가지 설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3. 대왕의 시대

▶ 야마토(大和)정권의 발전 : 3세기 후반에 이르면 나라분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왕을 중심으로 긴키지방의 유력한 호족으로 구성된 세력(**야마토정권**)이 생겼다. 왕이나 호족의 묘로서 거대한 고분이 제작되고 야마토정권의 세력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前方後圓墳** 등의 고분을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무덤이 성행한 6세기 말경까지를 **古墳時代**라 한다. 왕을 대왕이라 부르게 되고, 유력한 호족들이 자신은 물론 아들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왕에게 봉사하는 조직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 고분문화 : 다수의 고분에는 표면에 돌이 깔려져 있고 다양한 형태의 **하니와**가 놓여졌다. 내부의 돌방(석실)이나 시체를 매납하는 나무널(관)에는 처음에 동경, 옥, 동검 등의 제사도구가, 뒤에 冠, 馬具, 철제무기나 농구 등이 넣어졌다. 사람들은 태양신이나 물을 지배하는 뱀 신 등 벼농사와 관계 깊은 자연신들 외에 일족을 수호하는 신을 신앙했다. 국가의 기원이나 야마토정권의 왕들에 대한 신화나 전승도 점차 정리되어져 갔다.

▶ 중국·조선반도와와의 교류 : 중국의 국내에서는 4세기무렵부터 분열하여 5세기대로부터 6세기대에 이르면 남북으로 나뉘면서 소위 남북국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조선반도에서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 삼국의 세력이 경쟁하게 된다. 야마토정권은 백제나 가야지역(임나)의 나라들과 결속하여 고구려나 신라와 전쟁을 했다는 사실이 호태왕(광개토왕)비에 기록되어 있다. 5세기에 야마토정권의 왕은 큐슈지방으로부터 동북지방 남부에 이르는 각지의 호족을 종속시켜 대왕이라 불리었다. 또한 『宋書』에는 **왜왕으로서의 지위와 조선반도 남부에서의 군사적 지휘권을 중국의 황제에게 인정해달라고 자주 사신을 보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이는 당시 왜가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는 과정에서 고구려로부터 방해를 받자, 당시 한반도에서 고구려나 신라와 전쟁을 벌이던 백제에게 병사를 보내 돕던 왜의 상황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지위를 높여 달라는 요청이라 볼 수 있다.)

▶ 대륙문화를 전한 도래인 : 중국보다 조선반도에서 일본열도로 건너간 이주민들이 많았

다. 이들은 도래인으로서 농업용의 큰 연못을 만드는 기술 외에 스에키(須惠器), 절제농구, 품질이 높은 견직물을 생산하는 기술, 漢字 및 유학, 불교 등도 전했는데, 조정의 기록이나 재정을 맡기도 했으며, 외국에 보낼 편지를 만들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했다.

제3절. 고대국가의 행보와 동아시아세계

1. 쇼토쿠(聖德)태자의 정치개혁

▶ 쇼토쿠태자의 정치 : 6세기에 일본에서는 지방호족이 반란을 일으키고 大和정권 가운데에서도 蘇我氏와 物部氏 등의 호족이 각각 지지하는 皇子를 大王으로 삼으려는 싸움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싸움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여왕인 推古가 즉위하고 조카 쇼토쿠가 섭정하게 되며, 蘇我馬子와 협력하면서 중국과 조선에서 배운 대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제도를 정리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관의 색 등으로 지위를 구별하는 冠位 12階의 제도는 가문에 얽매이지 않고 재능과 공적이 있는 사람을 관리로 등용했던 것이다. 또한 불교와 유학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인 17조의 憲法에서는 천황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 등 관리의 자세를 가르쳤다.

▶ 아스카(飛鳥)문화 : 6세기 중반에 백제로부터 불교가 전해졌는데, 그때까지 자연신들을 믿고 소박한 사후세계를 생각한 사람들은 병의 회복이나 조상의 사후세계에서의 행복을 비는 수단으로서 불교를 믿게 되었다. 귀족들 가운데에는 고분을 대신해서 절을 짓는 것으로 권위를 과시하려는 사람도 나타났다. 아스카지역을 중심으로 일본 최초의 불교문화가 꽃피었는데, 대표적인 사찰로 호류지(法隆寺)가 있다.

2. 大化의 개신

▶ 大化의 개신 : 7세기 중엽 蘇我氏의 독재적 정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中大兄皇子가 645년에 中臣鎌足(후의 藤原鎌足) 등과 함께 蘇我蝦夷·入鹿 부자를 제거하고 가마다리와 유학생, 승려 등의 협력을 얻어 새로운 지배조직 구성의 개혁을 시작했다. 수도는 나니와(難波)로 옮기고 그때까지 호족이 지배하고 있던 토지와 사람들을 公地·公民으로서 국가가 직접 지배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또한 조정과 지방조직이 만들어지고 권력의 집중이 지향되었다. 이들 개혁을 645년에 일본에서 처음 정해지게 된 연호 大化를 기념해서 대화개신이라 한다.

▶ 울령국가에의 행보 : 조선반도에서는 당나라가 신라와 결속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663년 일본은 백제의 부흥을 돕기 위해 대군을 보냈지만, 당과 신라의 연합군에게 패하였다. 당과 신라는 고구려도 멸망시켰지만 결국 신라는 당의 세력을 등에 업고 조선반도를 통일했다. 중대형황자는 서일본의 각지에 산성을 쌓고 당과 신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했다. 大津宮으로 수도를 옮긴 황자는 여기에서 즉위하여 天智天皇이 되며 처음 전국의 호적을 만드는 등 개혁을 진행하였다. 후계자 싸움인 壬申의 亂(672년무렵 일본의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일어난 내전)을 통해 천지의 뒤를 이어 즉위한 天武天皇은 수도를 아스카에 세우고 천황의 지위를 높여 울령과 역사서를 정리하는 명령을 내리는 등 새롭게 강력한 지배조직을 만들었다. 천무의 사후 그의 부인인 持統이 왕위에 오르고 藤原京을 만드는 등 울령제도를 실시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등원경은 중국의 수도처럼 본격적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고 구획된 최초의 수도였는데, 일본이란 국호도 이 무렵 정해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3. 율령국가의 성립과 平城京

▶ 大寶律令 : 701년 당의 법률에 따라 만들어지고 전국을 지배하는 조직이 촘촘히 정해졌다. 律은 형벌의 규칙, 令은 정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규칙으로 율령에 기반하여 정치를 행하는 국가를 율령국가라 한다. 710년에는 나라분지 북부에 당의 수도 장안을 모방한 평성경이 율령국가의 새로운 수도로서 만들어졌다. 나라에 수도를 세운 이후부터 교토의 平安京으로 수도를 옮기기까지의 80년 동안을 奈良時代라 한다.

▶ 都와 國 : 평성경 북쪽에 설치된 구획 안에는 왕(천황)의 거처와 太政官을 비롯한 관청이 세워졌다. 평성경에는 대략 10만 인이 살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약 1만 인이 관청에서 일했다. 평성경 안에 설치된 東市와 西市에서는 각지로부터 수도에 보내진 물산 등을 매매했으며, 和同開珎 등의 화폐도 발행되었다. 지방은 여러 국으로 나누고 국마다 國府로 불리는 관청이 설치되었다. 이들 나라에는 수도에서 國司가 파견되고 지방의 호족이 임명된 국가를 지휘하여 정치를 시행했다. 수도와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도 정리되고, 관리가 왕래할 수 있도록 驛이 설치되어 갈아탈 말을 제공하였다.

4. 나라시대 사람들의 일상생활

▶ 사람들의 신분과 부담 : 8세기 전반 사람들은 율령의 규칙에 기반하여 6년마다 작성되는 호적에 양민과 노비 등의 천민으로 나뉘어 등록되었다. 6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별과 양민, 천민 등의 신분에 따라 口分田이 주어지며, 班田收授法이라 하여 그 사람이 죽으면 국가에 되돌려주게 된다. 사람들은 구분전의 면적에 따라 租를 부담했지만, 이 외에 일반 양민 성인남자에게는 布와 특산물을 수도까지 운반하여 바치는 調, 庸 등의 세금이나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었다. 조는 기근 등에 대비해서 수도 등의 창고에 넣어두었지만, 조와 용은 귀족, 관리에게 급여 등 조정의 운영을 위해 쓰였다. 양민 가운데에도 200인 정도에 불과한 귀족들은 태정관을 비롯한 관청에 높은 지위로 나아갔다. 귀족들은 조·용과 병역이 면제되고, 높은 급여와 다수의 토지를 받았다. 반면, 노비는 매매되거나 노비 이외의 사람들과의 혼인이 금지되며, 자손도 노비가 되었다.

▶ 토지의 사유와 莊園 : 철제농구의 확산과 경작지의 정비에 의해 생산력은 향상되었지만, 그것 이상으로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점점 구분전이 부족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743년에 墾田永年私財法을 내놓았다. 이 법에서는 새로이 개간한 토지에 구분전과 동일한 租가 붙지만 사유가 인정되며, 자손에게 전해져 팔 수 있게 되었다. 귀족과 사원, 郡司 등은 주변의 농민을 부려 개간하기도 하고, 간전을 매매하면서 활발히 사유지를 넓혀 나갔다. 이들 사유지의 관리를 위해 사무소와 창고는 莊으로 불리는데, 귀족과 사원의 사유지는 결국 장원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리하여 公地·公民의 원칙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5. 天平文化

▶ 天平文化 : 天平은 일본 聖武 治世(724-749) 중 729년부터 748년까지 사용한 연호인데 이 시기의 문화를 가리킨다.

▶ 나라시대의 불교와 사회 : 불교의 힘에 의해 전염병과 재해 등의 불안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나라마다 國分寺와 國分尼寺를, 수도에는 東大寺를 세우고 동대사에 금동대불상을 안치하였다. 당시의 승려는 세금과 형벌을 면제받는 등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그 대신 국가를 佛力으로 지키도록 명령을 받고 있었다. 한편으로 일반인들 사이에서 포교하고 사람들과 함께 용수로와 다리 등을 만드는 승려도 출현하였다.

▶ 역사서와 萬葉集 : 국가의 조직이 정비되고 국제적 교류가 활성화되면 국가의 기원이나 왕이 국가를 다스린 역사를 기록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신화와 전승, 기록 등을 기반으로 한 역사서 『古事記』와 『日本書紀』, 지방의 국별로 자연, 산물, 전설 등을 기록한 「風土記」가 정리되었다. 또한 왕이나 귀족뿐 아니라 防人和 농민의 노래 등을 수록한 「萬葉集」도 만들어졌다.

6. 平安京과 동아시아의 변화

▶ 平安京 : 나라시대 후반 귀족과 승려 사이에 세력 싸움이 격해져 정치가 혼란해지자, 桓武天皇은 794년에 수도를 현재의 京都市로 옮겨 平安京이라 하였는데, 가마쿠라(鎌倉)막부가 성립할 때까지 약 400년간을 平安時代라 부른다.

▶ 最澄과 空海 : 9세기 초에 최징은 일본에 새로운 불교 교리인 天台宗을 전한 승려이며, 공해 역시 眞言宗을 전한 승려였다.

▶ 동아시아의 변화와 遣唐使의 停止 : 9세기에 접어들어 한반도와 중국에서 큰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 각각 고려와 송나라가 세워지면서 일본에서도 이들 나라에 파견한 사신을 중지하게 되고 정식 외교관계도 맺지 않았지만, 양국 상인과의 교역은 이루어졌다.

7. 摂関政治와 문화의 國風化

▶ 摂関政治 : 헤이안시대인 9세기 후반에 藤原氏처럼 딸을 황후로 만들고 그 아들을 천황에 오르게 하는 것으로 세력을 늘리면서 그 외의 귀족들을 몰려나게 하고 천황이 어릴 때 섭정으로, 성장하면 '関白'이라 하여 천황을 보좌하는 관직에 나아가 國司를 임명하는 권한 등의 정치실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처럼 섭정과 관백이 중심이 된 정치를 말한다.

▶ 國風文化 : 일본의 풍토와 생활을 일본인의 감정에 맞는 문화로 생산해 낸 것을 말한다. 9세기에는 한자를 변형시켜 일본어의 발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연구한 가나(仮名)문자를 만들었다. 이 시기 「古今和歌集」은 물론 여성들의 문학작품이 다수 만들어졌다.

▶ 淨土信仰 : 10세기 중반이 되면 점차 사회가 혼란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한 기운이 높아져 염불을 외치며 아미타여래에 매달리고 사후 극락정토에서 태어나 바뀔길 기원하는 정토신앙이 일어났다. 11세기에는 정토신앙이 지방인들에게 까지 퍼져 아미타여래상과 그것을 안치하기 위한 아미타당이 각 지역에 만들어졌다.